

‘조국 정국’ 여야 주도권 싸움 확산



관심 집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개혁정책 상심 훼손 안돼” 청문회 통한 정면돌파 의지 야, 조국 후보·딸 검찰 고발 ... 시간 끌며 대어 총공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앞둔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대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내달 추석 연휴까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한국당 등의 의혹 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 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한을 오는 30일

로 못 박고 야당에 청문회 의사일정 합의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조국후보 청문회 개최를 통한 ‘조국 지키기’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날 말을 청문회 시한으로 제시한 데는 시간을 끌면 갈수록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가 갖는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성도 여당

의 정면돌파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개혁 추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태도를 더 강경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도 국민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 여론을 자극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소집요구에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에 “금수저 중금수저”, “본인이 비판하던 특권세습”이라고 비판한 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여여권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및 뇌물 수수 혐의를, 조 후보자의 딸에게는 업무 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 고발과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어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면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면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면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충돌 민주당 “이달 내 처리” vs 한국당 “날치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31일’로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해왔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9월 남았는데,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당은 긴급 안전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전조정위는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정의당은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반면 한국당은 사실상 날치기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신환 “손학규 대표, 결단 내려주길” 바른미래 원내대표 취임 100일 회견... “추석 전 체제 정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손학규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학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아니라 총선 자체를 치러내기 어렵다.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며 “여러 의원, 당내 구성원들과 논의한 뒤 추석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포스트 손학규’ 체제와 관련해 “조기 정당대회를 치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이 한쪽으로 모인다면 손 대표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기승전-손학규 퇴진” 아닌가. 안 들어도 뻔하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모든 의혹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중도 사퇴하지 않을 듯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에 뜻을 접는 일 없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어 이날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선 조 후보자는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 “항후 더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아켜볼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

혀, 중도 사퇴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를 만난 뒤,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장학금을 부당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퇴여론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성찰하면서 계속 앞으로의 삶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딸의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청년층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에는 “당시 제도가 그랬거나, 적법했다거나 하는 말로 변명하지 않겠다”며 “저 역시 그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

련한 의혹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고, 소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이 위원회 소속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 인턴십에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조씨의 유엔인권 인턴십 참가에 대해 “조 후보자가 선발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강창용 광주평화재단 공동대표 자치분권위 자문위원 위촉


강창용 광주평화재단 공동대표(사진)가 22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조정 기구로 강 대표는 2년간 임기의 활동에 들어갔다.

자치분권위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과제 33개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로 ‘자

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해 추진 중이다.

강 대표는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잘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이 분야에 석박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전달과 자치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무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 화순군 도곡면 원하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